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②

1. 각종 교재(教材)에서의 한자 오기



박동규 영북노년대학 학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교재는 한자학습을 위한 교재와 교양을 위한 교재로 가정·서당·학원·개인이 한문학습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재는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내용이나 수준과 난이도(難易度) 그리고 활용의 빈도(頻度)를 고려하지 않고 편찬(編纂)된 교재가 상당수에 이른다.

대부분 붓(毛筆)과 펜(硬筆)으로 쓰는 필사본(筆寫本)으로 생활한자와 기초한자를 독해(講解)하는 정도의 교재들이 수없이 범람(汎濫)하게 간행(刊行)되고 있는 실정인데, 교재마다 한자의 오류(誤謬)를 수없이 지적(指摘)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재를 대강 훑어보면 한자의 자원(字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점·획을 본래의 자형대로 표기(標記)·필사(筆寫)가 안 된 한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라 일일이 지적(指摘)하게 된다.

지면 관계로 몇 개만 소개해 보면 기(己)·이(已)·사(巳), 절(戔), 무(戊)·수(戌)·술(戌)·월(戌), 어(魚)·어(漁), 수(囚)·인(囚)·곤(困)·곤(困), 자(藉)·적(籍), 모(母)·무(毋), 부(傅)·전(傳), 점(占)·점(點)·점(點), 고(告)·약(若), 비(比)·차(此), 중(衆)·상(象), 기(其)·기(基)·기(基)·기(基)·기(基)·모(摹)·모(摹)·모(摹)·모(摹)·간(干)·(于) 등 혼동(混同) 내지 동일시(同一視)해서 표기했으며, 인(九)·작(乚), 절(卩)·부(卩)를 혼동(混同) 표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구(具)·황(皇)·조(鳥)·조(曹)·구(具)에서 'ㄷ', 'ㄴ'의 탈락시켜 오기했다. 인(隣)·인(隣), 군(群)·군(羣), 봉(峯)·봉(峰), 소(疎)·소(疏), 곡(穀)·곡(穀) 등은 앞에 한자가 정자이고, 다음 한자가 속자지만 일반적으로 두루 사용하기도 한다.

획수(劃數)도 정확히 다루어야 하는데 특히 작명(作名)에서는 1획이 틀려도 음양(陰陽)이 바뀌게 되니까 지적하게 된다. 예를 들면 '冠'자는 총 획수 6획을 7획으로, '笄'자는 4획을 3획으로, '笄'자는 7획을 8획으로, '笄'는 13획을 14획 등 획수를 1획씩 가감(加減) 오기한 한자들도 있다.

한자의 독음(讀音)이 여러 개가 되어 일자다음(一字多音)의 혼선으로

오류(誤謬) 한자 가운데는 주로 점의 탈락(脫落), 획(劃)의 탈락, 획의 첨가(添加), 약자(略字)·속자(俗字)·고자(古字)·간자(簡字)의 기본오류(基本誤謬) 등 표기할 것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

근간에는 학교에서 한자·한문 교육이 소홀하지만 사교육 형태의 한자능력(漢字能力) 검정시험(檢定試驗)의 응시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한문 조기교육(早期教育)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응시생들이 활용하는 교재나 문제집에서 오타자가 왕왕 발견되니 완벽(完璧)한 간행(刊行)을 촉구하게 된다.

교재나 문제집을 전문가나 학자로 하여금 교재 사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구성(構成)·체제(體制)·자원(字源)·필사(筆寫)·사성(四聲) 등 요목(要目)을 갖춘 교재를 제작토록 해야 한다.

특히 본래의 자형의 정자(正字)를 바르게 필사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제작되는 교재는 전문가의 감수(監修) 과정을 꼭 거쳐서 발간해야 하며, 인쇄물은 여러 사람의 남독(覽讀)으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록 오자 1개인 간행물(刊行物)을 1000부를 발행했다고 하면 적어도 1000사람이 읽게 되므로 오자가 1000개인 셈이다.

이런 교재제작에 대한 한문의 식견(識見)이 부족하고 필사력(筆寫力)이 부족한 가운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게 마련이다.

이런 교재제작에 대한 한문의 식견(識見)이 부족하고 필사력(筆寫力)이 부족한 가운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게 마련이다.

이런 교재제작에 대한 한문의 식견(識見)이 부족하고 필사력(筆寫力)이 부족한 가운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게 마련이다.

이런 교재제작에 대한 한문의 식견(識見)이 부족하고 필사력(筆寫力)이 부족한 가운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게 마련이다.

자유기고

문화유적답사와 우리고장 현충시설물 탐방사업 전개



최행호 의정부부흥지청 부원장

티투어에 현충시설물 탐방 사업을 포함 실시하여 우리고장에 산재하고 있는 현충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관내 현충시설물에 대하여 해설하여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부지청은 사단법인 유엔한국참전국회회에서 주관하는 영국인민경격전 기념식 등 7개의 해외참전행사와 육탄용사 효국정신선양회에서 주관하는 배티고지 전몰육탄용사추도식 등 5개의 국내참전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참전용사와 관련된 유관단체 임직원뿐만 아니라 추도식을 거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추도식 등에 관내 지역주민 중 참석 희망자를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관심

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념식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산화한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아시아의 대표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숭고한 전몰군경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들은 전몰군경의 나라사랑 정신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

자유기고

부들과 함께 하는 민생운하는 인류의 희망



김창호 평택12팀 의장

선의 영토와 문화를 답습한 고구려의 성읍이 정전제(井田制)였으나 이를 어찌 모를까! 다만 정전제(井田制)와 군사적 관계를 깊이 불렀던 것이었다고 했다.

고조선의 구법(溝法)에 의하여 홍수가 지면 물이 흘러서 강으로 빠져 나가게 하고 가뭄이 오면 강의 물을 끌어서 전야의 수리편을 위하여 사용토록 만들었다.

고구려의 민생운하는 정전제의 강화였고 사회 안전망이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강에서 가난한 사람은 고기도 잡고 부들도 발라뚫지리를 만들어 팔았을 것이다.

밭 흙릴 자재만 되어 있으면 살 기분이 되어 주는 곳이 고구려의 강이었다.

강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가 함께 팔고루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유재산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구려의 정전제(井田制)였고 그 근간을 가장 경제적인 수익성이 높았던 민생운하가 해 주었다.

고구려의 유태왕님이 흘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도시를 조성한 근간에 대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사슴과 물고기가 많으므로 백성의 삶이 좋아질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구려 유태왕님의 예에서처럼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해야 한다.

기존 뉴타운과 재개발 정책은 구기육을 보강하므로 수요를 증대시켜 집값을 올리고 이 주민을 발생케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생운하는 정전제(井田制)에 의해 개간하고 농경의 수리를 도모했다. 더욱이 고구려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은 '민생운하'의 승리였다. 당나라 태종대에 이 위공 문묘에서 고조

다. 하지만 민생운하 신도시는 모래와 골재 용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최소한 시키며 순수 공급량을 늘리고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취수장이 가까우므로 가장 저렴한 물도 공급할 수 있다. 특이한 자연으로 환원되는 '부들유'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박의 연료로 사용토록 하는 세계문화유산이 마련되었지만 태안반도의 참혹함을 겪지 않아도 되겠다. 더 욱이 세계 곡물가격과 석유가격의 안정화도 가져와 인류사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 겨레는 땀으로 인해 부들의 자연성이 떨어지고 석유를 수입해 사용하기 전까지 '부들'의 이삭을 말려 양초나 햇불의 대용으로 썼다. 그러므로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가에 '부들'을 심어 친환경 에너지의 원료로 하면 좋을 것이다. 물가와 이웃에게는 바구니나 밭의 재료로 많이 썼다.

그동안 한탄강댐은 주민들의 반대로 세월과 예산을 낭비했다. 하지만 윤하가 들어선다는 지역은 주민이 기대와 환영을 하고 있다.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심정의 정치와 정책이다. 필자는 윤하는 희망이고, 윤하되는 복직이고 사회적 안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탄강을 짓점으로 전세계를 네크워크를 마련하는 생명, 평화, 문명 윤하신도시를 기대해 본다.

교육에세이 66

새 학년을 준비하는 마음(2)



이호연 평택중학교 교장

2. 둘째 날

가. 1교시 : 대부분 첫 만남을 갖는 날은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날이 본격적으로 대화의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둘째 날은 자신이 준비된 교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소품을 가지고 하는 자기소개, 이름 릴레이, 이름 빙고, 친구 사탕을 아주 꼼꼼하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학급 구성원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지, 담임으로 어떤 당부의 말을 하고 싶든 등을 파악하게 적는다. 설명이 끝나면 교실 게시판에 붙여 두는 것도 좋겠다.

나. 2교시 : 내 소개하기 첫 만남은 담임과 학생 사이에 있어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담

임선생님이 어떤 분일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같은 반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일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친구들과 한 반에 모여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서먹서먹함이 학생들 자리에 함께 한다. 이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를 통하여 서로를 소개하는 방법도 좋다.

1) 활동지로 해 보는 자기소개 - 처음으로 해 보는 자기소개라든가 교사가 미리 일정한 틀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자신의 자랑거리 세 가지, 더 잘했으면 하는 상황을 세 가지 정도 쓰게 한 후 자기를 소개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소품을 가지고 하는 자기소개, 이름 릴레이, 이름 빙고, 친구 찾기를 빙고, 그림으로 소개하기, 명함 만들기 등이 있다.

다. 3교시 : 학생 파악하기 1) 학급 경영에서 학생들에 대한 신상 파악, 특기,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고, 진로 지도 및 교과, 생활지도 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 기초 조사표를 작성해 오게 하는 데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 꼭 필요한 사항만 적어오도록 한다. 전화번호나 교사가 알아야 하는 학생의 특기사항, 학부모의 비망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가정통신을 보내어 정보를 구하는 방법, 알람장을 이용하는 방법, SMS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2) 학급의 사물 사용하기 책상에는 시간표 순서대로 책은 왼쪽, 공책은 오른쪽에 정리하게 한다. 의자는 항상 바르게 사용하며 일어선고 앉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사물함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학용품은 아래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 학용품은 위에 두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라. 4교시 : 준비해야 할 학용품 안내하기 1) 공책준비 :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게 한다.(과목별로 만들지 않음)

2) 필기도구 : 연필 3~4자루, 지우개 1개, 색연필 1세트(사물함), 사인펜 1세트(사물함), 필통은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장난감이 붙어 있는 것은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3) 그 외 30cm 자, 삼각자, 클리퍼 화일(포트폴리오), 수채화물감 및 도구 등을 안내하고, 연필깎이는 교실에 한 개 정도 준비해서 사용하면 좋다. 마. 하고지도 하고 준비가 끝나면 학생들과 하루의 생활을 간단히 정리하고 내일 학습안내 및 알람장을 확인한 후 미리 약속한 장소에 모이도록 지도한다. 이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라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사는 당번활동 지도를 한 후 학생들을 교문 앞까지 인솔하여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세대들은 이렇게 노래한다고 한다. Tell me, I will forget : 말로 설명해 봐, 잊어버릴 테니, Show me, I may Remember : 눈앞에 보여줘 봐, 기억할지도 몰라, Involve me, I will understand : 날 감동시켜 봐, 이해하게 될 거야?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시에는

(주)꽃샘종합식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65년 7월 전업양봉 개시
1987년 3월 현재 1공장 신축 준공
1992년 7월 (주)꽃샘종합식품 법인 설립
1997년 9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중부 영업소 개소
2004년 10월 ISO. 9001-14001 인증획득
2005년 7월 농촌사랑 1社1村운동 자매결연 전북 임실 두물마을
10월 국제청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선정
2006년 9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12월 우크라이나 빅토르안드리오비치유센코 대통령 방문
2007년 5월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제 2공장 준공
6월 대통령초청, 우크라이나 방문 우호협력 조인식 체결

수훈·수상

- 1996년 10월 베트남 아시아 양봉학술대회최우수상 수상
12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2000년 2월 서울특별시시장 표창 수상
2001년 11월 대한민국석탑산업훈장 수훈
1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 표창 수상
2003년 6월 LG 유통으로부터 최우수업체 금상 수상
2004년 3월 국제청장 표창수상
2006년 2월 롯데마트로부터 감사패 수상
2007년 5월 상공회의소 주관 직장인체육대회 3년 연속우승
5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6월 인재장학회 장학금기증 포천시장 감사패 수상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주)꽃샘종합식품 KKOH SHAEM GENERAL FOOD CO., LTD.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 : 代 031)541-9921 FAX: 031)541-9933
http://www.ksfs.co.kr